会 社 名　株式会社ガーラ（コード番号 4777)
代表者名　代表取締役グループ CEO キム・ヒョンス
本　　社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 1-9-2

갈라랩, ‘FWC 2026’ 그랜드 파이널 종료
‘프리프 유니버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 재확인

2026년 11월 06일

주식회사 갈라(대표 김현수)는 자회사 주식회사 갈라랩이 개발하고 위메이드커넥트(대표 이호대)가 서비스하는 글로벌 HTML5 MMORPG ‘프리프 유니버스(Flyff Universe)’의 세계 대회 ‘FWC 2026(Flyff Universe World Championship 2026)’ 그랜드 파이널이 지난 10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 ‘FWC 2026’ 그랜드 파이널 행사장

올해로 4회째를 맞은 FWC는 전 세계 ‘프리프 유니버스’ 이용자들이 전용 서버에서 동일한 출발 조건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PvP 및 PvE 콘텐츠를 통해 실력을 겨루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다. 2023년 온라인 대회로 시작해 매년 규모와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함께 즐기는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방문자로 글로벌 커뮤니티의 열정을 입증

이번 그랜드 파이널은 필리핀 마닐라의 ‘SM 몰 오브 아시아 뮤직홀’에서 개최됐으며, 필리핀, 프랑스, 미국, 칠레 등 총 7개국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8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결승전에서는 ‘팀 아스트랄’이 ‘수파핫크루XD’를 3대 1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아스트랄은 이번 우승으로 FWC 역사상 최초의 3연패를 달성했으며, 우승 상금 8만 달러를 획득했다.



▲ 3연패를 달성한「Team Astral」

올해 대회는 경기 성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의 높은 참여 열기로도 주목받았다. 행사 현장에는 약 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지난해 약 3,000명 대비 두 배 이상의 규모를 기록했으며, 유튜브와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누적 시청자 수도 약 5만 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프리프 유니버스’의 글로벌 이용자 커뮤니티가 지닌 높은 관심과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필리핀 현지 인기 걸그룹 ‘KAIA’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코스프레 프로그램, 인플루언서 팬 이벤트,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공식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개발진과 이용자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돼 게임에 대한 의견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행사 현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

◆ 유저의 목소리와 함께 진화하는 ‘Flyff Universe’

특히 FWC는 대회 시즌 동안 이용자들이 새로운 캐릭터를 육성하고 협력과 경쟁을 경험하는 구조를 통해,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갈라랩은 이러한 이용자 참여와 대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플레이 데이터 및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 콘텐츠와 PvP 밸런스 등 서비스 전반의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회사 갈라의 김현수 대표는 “이번 FWC 2026은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이 ‘프리프 유니버스’를 통해 쌓아온 열정과 유대감을 직접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게임 플레이 데이터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프 유니버스’는 2004년 출시된 국내 최초의 비행 MMORPG ‘프리프(Flyff)’를 웹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환경으로 재해석해 2022년 선보인 작품이다. 원작의 자유로운 비행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협동 중심의 길드 콘텐츠 등을 계승하면서 웹브라우저를 통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以上

《お問い合わせ先》

cfo@gala.jp